



차이나

CHINA Industrial Policy Brief

산업정책 브리프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1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리커창 총리, <2분기 경제성장 안정화 추진을 위한 조치> 발표

■ 리커창 총리는 6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, 경제 하방압력이 여전히 크지만 2분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

- 동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△대외무역과 외자유치 등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. 외자 기업의 조업재개 및 생산 등의 방면의 어려움을 해소 △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시장화·법치화·국제화 경영 환경을 조성. 특히 중서부의 외국인 투자 제조업 장려 목록을 확대함으로써, 외자 기업과 상시적으로 교류를 통해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, 해결책을 마련 △신용평가가 높은 기업에 한해 단계적으로 3일(근무일 기준)이내에 세금을 환급 △우수제품 수입을 확대하고, 항구 컨테이너 하역작업 및 통관 효율을 향상시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△항만사용료를 단계별로 감면하고, RCEP를 활용하며, 자유무역시범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등 내용이 포함됨
- 앞서 국무원은 5월 26일에 방역·경제 사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12개 성(省)에 감찰팀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

자료원 : 국무원

www.gov.cn/premier/2022-06/08/content_5694710.htm

2 中 상무부, <외자인 투자기업 경영 안정화 추진 계획> 발표

■ 상무부 부국장 왕쑤원(王受文)은 6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외자기업을 위한 경영 환경을 최적화 할 계획이라고 발언함

- 구체적인 조치로 △상무부는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외자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. 외자기업의 인력, 비자, 생산·경영, 물류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소. 올해 5월 31일까지 상무부는 중점 외자기업 상대로 화물운송차량 통행증 1,100여개를 발급함 △상무부는 외국상공회의소와 상시적인 교류 체제를 구축. 올해 들어 상무부는 외자기업·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15회 이상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, 120여 개 외자기업이 참여함

△외자기업의 외국인 개인 소득세 감면정책을 2023년까지 연장 △상무부는 현재 발개위 등 10여 개 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수정 중에 있으며,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계획임

- 한편, 2021년 외자기업의 수출입액은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35.9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환구시보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35042784606204050&wfr=spider&for=pc>

3 中 지식산업국, <지재권 보호·강화를 통한 경제안정화 추진 통지문> 발표

■ 6월 10일, 국가지식산업국(国家知识产权局)은 <지재권 보호·강화를 통해 경제안정화를 추진하는 통지문>(《关于知识产权政策实施提速增效促进经济平稳健康发展的通知》)을 통해 12개 조치로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, 실물 경제 발전을 추진시키겠다고 밝힘

- 구체적인 조치로 △특허 연회비 납부 유예정책을 실시하고 연체료를 감면 △지적재산권의 등록 신청 및 상표등록출원 심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 △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등 정책을 잘 활용하여 영세 기업의 용자를 지원 △특허 개방 허가 시범 실시를 통해 기업의 특허 비용을 절감 △지적재산권 분쟁 처리 시범 센터를 구축함으로써, 지적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 △기업이 연구개발 혁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임
- 한편, 국가지식산업국 부국장 후원후이(胡文辉)는 2021년 기준 중국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29만 8,000개사로 전년대비 5만 2,000개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

자료원 : 국가지식산업국

https://www.cnipa.gov.cn/art/2022/6/10/art_75_175973.html

http://www.gov.cn/xinwen/2022-01/13/content_5667957.htm

4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, <의료기기 생산·경영 등급 관리 조치> 의견수렴

■ 6월 6일,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생산·경영 감독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<의료기기 생산 경영 등급 관리조치>(《关于加强医疗器械生产经营分级监管工作的意见(征求意见稿)》)를 발표하여, 2022년 6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

- 금번에 발표한 의견수렴고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2015년에 제정한 법규 대비 구체적으로 △지방약품감독관리국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△의료기기 중점 감독관리 목록을 조정

혈액투석설비·혈관 조영 카테터 등 84개 품목을 의료기기 생산 중점 감독 목록에 포함시켰고, 혈액주머니·수액기기 등 47개 품목을 의료기기 경영 중점 감독관리 목록에 포함시킴 △전년도 행정처분 유무나 신용불량 기록 등을 참작하여 기업별 등급을 구분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 등 내용이 포함됨

- 한편,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, 중국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2019년 기준 1만 8,000개사에서 2021년 2만 9,000개사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국가약품감독관리국

<https://www.nmpa.gov.cn/xxgk/zhqyj/zhqyjylqx/20220602160159175.html>

5 中, 〈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〉 8월 1일부터 시행

■ 6월 14일,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은 신규 〈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〉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

- 동 규정에서의 ‘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’은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에서 실행되어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가리키며, 국가인터넷정보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2016년 8월 1일 시행 이후,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법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정보 및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고, 국민 및 법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함
- 신 규정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됐으며, 구체적인 내용으로 △정보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, 실명 제 정보 조회, 감독 및 행정 관리 등의 조항을 포함 △정보 콘텐츠의 보안 관리,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, 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, 네트워크의 안전을 확보 △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플랫폼은 데이터 조작,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목적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, 서비스를 중단시키며, 법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됨

자료원 :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

http://www.cac.gov.cn/2022-06/14/c_1656821626455324.htm

6 中 베이징시, 〈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 방안〉 발표

■ 6월 8일, 베이징시 상무국은 〈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성화 방안〉(《北京市数字消费能级提升工作方案》)을 발표함으로써, 베이징시를 글로벌 디지털 경제 벤치마킹 도시 및 국제 소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

- 동 방안의 구체적인 목표로 △2022년에 이르러 베이징시에 5G 기지국을 신규로 6,000개 구축하고, 콘텐츠 산업 매출액 3,500억 위안(약 67조 원) 달성 △생방송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조 위안(약 192조 원)에 달하게 하고, 라이브-e커머스(直播电商) 선두기업 10개사를 육성하는 것 등임

-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△‘동계 올림픽’을 계기로 온·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스포츠 건설을 추진하고, 온라인 피트니스 등 디지털 스포츠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육성 △과학기술 및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발전하도록 추진. 디지털 박물관, 디지털 전시관 등 디지털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 △게임 분야의 감독을 강화. 게임 과도몰입 방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, 빅데이터·인공지능·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게임업체들의 콘텐츠 심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려 △디지털 콘텐츠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,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△라이브 이커머스 인재 육성 체계를 정비 △생방송 이커머스 시범 운영을 추진. 종합보세구역에 소비재 전시거래센터를 구축함으로써, 생방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,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입점하여, 생방송 이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△우수한 라이브 이커머스 기업 대상으로 기업 제품에 대한 행정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향상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베이징시 인민정부

http://www.beijing.gov.cn/zhengce/zhengcefagui/202206/t20220610_2734270.html

7 中 선전시, 〈반도체 및 집적회로 산업 육성 계획(2022-2025년)〉 발표

- 선전시 발개위, 선전시 과학기술관리위원회 등 부처는 6월 6일 공동으로 〈선전시 반도체 및 집적회로 산업 육성 계획(2022-2025년)〉(《深圳市培育发展半导体与集成电路产业集群行动计划(2022—2025年)》)을 발표하여, 2025년에 이르러 연당 매출액이 100억 위안(약 1조 9,000억 원)에 달하는 반도체 설계기업과 매출액이 20억 위안(약 3,800억 원)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기업을 각각 3개사씩 육성함으로써,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
- 구체적인 내용으로 △반도체 소재 분야 연구개발 촉진 △2025년까지 4개 이상의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구축 △집적회로 산업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, 반도체 산업 관련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기업 상장 추진 △12인치 실리콘 베이스와 6인치 이상 화합물 반도체칩 생산라인을 중점적으로 배치 △반도체 관련 인재 영입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됨
- 한편, 최근 몇 년 동안 선전시의 반도체 산업은 빠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2021년 선전시 집적회로 기업의 총 매출액은 1,100억 위안(약 21조원)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또한 선전시는 국가급 집적회로 설계 산업기지, 국가급 반도체 기술 혁신 센터 등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

자료원 : 선전시 발개위

http://fgw.sz.gov.cn/zwgk/qt/tzgg/content/post_9854518.html

8 美, 중국산 황산암모늄에 반덤핑 규제지속 판정

- 6월 8일,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황산암모늄(Ammonium Sulfate)에 제1차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 규제지속 판정을 내림. 중국기업의 반덤핑 관세부과율은 493.46%임
- 황산암모늄은 백색의 결정 모양 분말로 비료에 활용되고 있으며, 2016년 6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황산암모늄에 최초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

자료원 : 무역구제정보망

<http://www.cacs.mofcom.gov.cn/cacscms/article/ckys?articleId=173387&type=1>

9 美, 중국산 무정형 실리카 직물에 상계관세 규제지속 판정

- 6월 7일,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무정형 실리카 직물(Amorphous Silica Fabric)에 제1차 상계관세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 규제지속 판정을 내림
- 동건의 HS 코드는 7019.59.4021, 7019.59.4096, 7019.59.9021 등이며, 중국 회사의 상계관세 부과율은 48.94%~165.39%임

자료원 : 무역구제정보망

<http://www.cacs.mofcom.gov.cn/cacscms/article/ckys?articleId=173367&type=1>